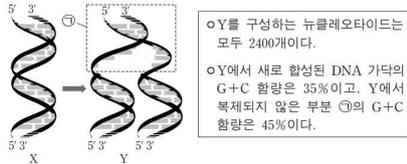


개념 부분에서 크게 변별력을 갖는 문항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Killer만 훈련하시고 계시다면 다음 문항들을 한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0. 그림은 대장균의 DNA X가 복제되는 과정의 일부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Y는 X가 50% 복제되었을 때의 DNA이다. 표는 Y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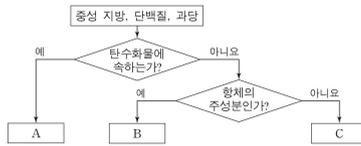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지연 가닥과 선도 가닥의 복제된 길이는 동일하다.)

- <보기>
- ㄱ. X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1600개이다.
  - ㄴ. 복제 과정에서 에너지가 사용된다.
  - ㄷ. X에서  $\frac{A+T}{G+C}$ 는 1.5이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15 수능 - 정답률 35%

2. 그림은 생명체에 있는 물질 중 중성 지방, 단백질, 과당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기>
- ㄱ. A는 이당류에 속한다.
  - ㄴ. B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한다.
  - ㄷ. C의 구성 원소에는 탄소가 있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7 수능 (생 1) - 정답률 38%

킬포 1 - 복제 과정에서 에너지?

킬포 2 - 소소한 비율 추론

(당시로서는 그러하나 22학년도 수능 대비인

이제는 해당 지식 뿐만 아니라 응용 지식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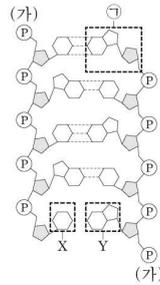
빠삭해야...!)

킬포 - 과당은 이당류인가?

④ vs ⑤ 외에 쓸림 없음

17. 그림은 5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진 어떤 이중 가닥 DNA를 나타낸 것이다. 이 DNA에서 구아닌(G) 염기 함량은 30%이다. (가)는 5' 말단과 3' 말단 중 하나이고, 염기 X와 염기 Y 사이의 수소 결합은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 <보기>
- ㄱ. (가)는 5' 말단이다.
  - ㄴ. ①은 뉴클레오타이드이다.
  - ㄷ. X는 사이토신(C)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1 수능 - 정답률 43%

킬포 - 뉴클레오타이드 정확한 정의

이런 문항들의 특징은 “한 번 모르면 수능장에서 틀렸는지 설사 검수할 시간이 나시더라도 모릅니다.”

따라서 새로운 상황을 통한 태도 정립 & 주기적인 개념 Remind는 필요합니다.

대전제

전 수업(인강)에서는 킬러 해제, 실전 활용 가능한 도구 위주로 드러야 효율적인 시간이 될 것이며 기대하시는 바 또한 그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ㅎㅎ;;

그에 따라 개념형 문항과 단권화, 비킬러 부분은 이와 같이 부교재 & 본교재 & 질문 파일로 대체할 생각입니다.

우리 쌍방향 & Band의 이점을 적극 활용해보아요 :) 0주차의 경우 제가 지금까지 받은 질문을 취합해봤습니다!! 1주차부터는 인강내용 & 모의 풀며 궁금하신 점 직접 여쭙봐주시면 될 듯 합니다!

기출 문제집에 문항이 있으면 이걸 왜 틀리지...? 와 같이 개념 강의 혹은 다른 Contents를 통해 이미 접했던 기억이 있어 다소 정답률이 높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선배들 Mind도 크게 나 자신과 다르지 않으며, 괜히 저 정답률인게 아닌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1차적으로 빠진 개념이 없이 채우는 게 Best이나...

#### 시험 운용

과탐 2과목을 잘 보는 사건을 A라고 하면, A의 여사건은 국영수를 잘 보는 사건입니다.

전체 시험 운용에 있어 A와 A<sup>c</sup>의 Balance는 중요합니다..!

100%, 완벽한 경지를 위해 질주하시다보면 타 과목 밸런스가 무너져 전체적인 시험 운용에 차질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정도 개념이 완성되었다면 “모의고사 형태”로 “새로운 느낌”을 여러번 접해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법을 학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배 분들 또는 올해 독자분들이 제시한 의문들에 대해 3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생각해보신 후 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Q1 세포 호흡은 이화 작용인데 ATP 합성은 동화 작용 아닌가요?

Q2 단세포 생물에서는 발생이 일어나지 않나요?

Q3 핵산과 핵, DNA의 구분

Q4 각 생물별 세포 소기관 보유 여부 질문 (예. 식물세포도 리소좀을 갖나요?)

Q5 물질대사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나요?

Q6 단세포와 원핵세포의 구분

Q7 인지질 2중층과 이중막의 구분에 대한 질문

Q7 코아세르베이트는 원시 세포인가요?

Q8 전자 전달계와 기질 수준의 ATP의 생성 차이에 대한 질문

Q9 기질 수준 인산화에서 효소의 기질이 무엇인가요?

Q10 곰팡이는 다세포 생물인가요? 곰팡이와 세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11 원핵생물도 RNA를 가지나요?

Q12 물질 X를 처리한다.'는 것은 X를 제거한다는 뜻 아닌가요?

Q13 인지질 외에 스테로이드나 단백질도 세포막을 구성하나요?

Q14 단백질이 포함되는 요소 정리 (EX 틸라코이드 막에는 광분해에 관여하는 단백질 존재)  
 + 중심체에 단백질 있는거... 알고 있어야...! 교육청은 중요도가 덜하다고 하나 그래도 올해 시험지인 22학년도 4월 교육청에는 분명히 “중심체”를 지칭하는 문항이 있음. 출제 빈도가 낮거나 없다고 “안나온다”라고 단정짓는 우를 범하지 말 것!

**Q4 Feedback**

생2 수준에서 동물 세포, 식물 세포, 대장균, 남세균, 메테인 생성균이 각각 어떤 세포 소기관을 갖는지, 어떤 구성 물질을 갖는지 떠올리시면 됩니다.

**Q14 Feedback**

**: 생물의 구성**

생2는 기본적으로 분자생물학의 기반에 대해 다루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에 따라 물질의 구성은 구체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EX 생1 17 수능 2번)

예를 들어 “21학년도 수능 17번 뉴클레오타이드 정확한 정의”는 제 생각에 개정 첫 해 서막일 뿐입니다. 아마 이전 생1에서 출제되었던 과당은 이당류인가?부터 시작해서 “물질의 세부 구성 요소”를 질문하는 킬포들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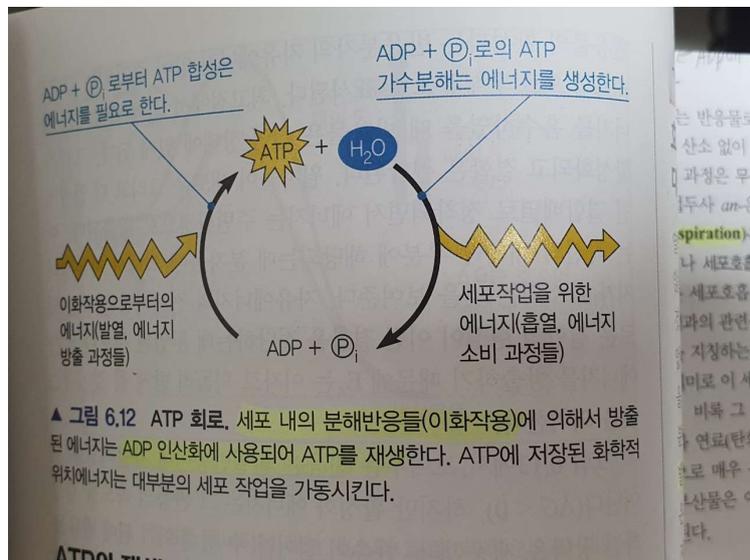
Q1 세포 호흡은 이화 작용인데 ATP 합성은 동화 작용 아닌가요? (O)

전체적인 세포 호흡 반응식 자체는 포도당 1mol 당 -686 kcal의 자유 에너지 변화를 갖는 발열 반응, 즉 이화 작용입니다. 다만 세포 호흡 전체로 볼때는 이화 작용이 맞으나 ATP 합성, 즉 ATP가 재생되는 과정의 경우 ATP 1mol 당 +7.3kcal의 자유 에너지 변화를 갖는 흡열 반응, 즉 동화 작용입니다.

(자유 에너지는 수치적 표현으로(+, -) 정확하게 동화, 이화 작용임을 설명드릴 수 있을 듯 하여 타 과목에서 빌려온 개념으로 생2 개념이 아닙니다! 결론만 얻어가셔도 됩니다 :))

적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며 세포 호흡 전체 과정으로는 이화 작용이지만 과정 부분으로 들어가면 동화 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까마득히 옛날 공부했던 서적 중 위 내용을 동시에 다루는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다른 이야기이나 복제 과정에 “에너지가 사용된다”라는 선지는 미리 예측해서 공부하지 않았다면 DNA 복제가 동화 과정이라는 교과 개념을 떠올려서 “동화 작용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므로 맞다” 라는 것을 추론해야 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14개의 질문에 답하실 수 있는지 점검해보신 후 Q2~Q14 중 모르겠는 사항 & 추가 궁금한 점은 질문주세요!-!

가급적이면 우리 비킬러 중 “개념 파트” 유형은 ① 질문 & ② 모의고사를 통한 미리 낫선 상황 점검 으로 끝내기로 해요 :) 감사합니다!

(Q2~Q14 답신을 전부 토도도 편집 & 검수하기에는... 다른 업들이 너무 많네요;-; 한 페이지에 질문을 담으려 가독성 면에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Q14까지 올렸으나 추후에 다른 질문들은 Vol.2, Vol.3 등으로 업로드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궁금하시면 질문주세요~)

까마득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고 계시는 분께서 어떤 인강 수학 선생님을 따르고 계시지는 잘 모르으나... 저 때 배우고 따랐던 수학 1타 선생님이 지금은 압도적 1타 선생님이십니다ㅎㅎ;;

저와 그렇게 나이차이 많이 나지 않으실...걸요!?!;;;

비킬러 유형 분류

준킬러, 킬러 파트를 풀어내는 사건의 여사건은 “비킬러 간결함, 정확성”입니다.

그에 따라 준킬러, 킬러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킬러”를 유형 별 분류, 각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하여 시간 Save, 및 정확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준킬러, 킬러 안중요하다는 거 나... 근데 21 수능 17번 같은 문제 틀리면 데미지가 코돈보다 더할걸...?

본 파트는 시간 문제가 아님 “의문사”를 주의해야 함...!

낯선 상황을 통한 주기적인 점검도 중요...! 킬러는 Logic이 한번 체화되면 잘 잊지 않으나 비킬러는 정말 그 순간의 컨디션 또는 감각 무시 못하는 파트

~8/20 수업 관련 Band에 업로드 될 Contents

[0주차 파일 (~8/19)]

1. Present[: 선물] 1권 22 6평, 7교 (올해 Trend) 반영 Schema 모음집 (Schema라 함은 배경 지식, 기출된 지식, 미출제 요소 등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22 9평, 10교는 추후에 반영본 새로 드릴 예정입니다.)
2. 자료 정리 Tool, “표의 구체적인 이해, 그리고 활용”
3. 자료 정리 Tool. “이항 대립”
4. 코돈 추론형 풀기 전, 이것만은 알고 풀자.

[0주차 드리는 교재 (8/20)]

1. Signal[: 시그널] vol.1
2. Bless[: 블레스] vol.1
3. Present[: 선물] Workbook 1권 vol.1
4. 문제지 4 set (문제지 4set는 덱으로 발송됩니다.)

위 파일들은 “예정된” 파일이고

추가로 제가 소통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떠오르는데, 또는 0주차 추가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드려야 할 게 생긴다면 그러한 Contents들 8/19까지 추가로 업로드 될 수 있습니다!

인쇄 & 예습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주차 수업, 인강은 8/21에 열리며 1주차 질문(본 파일 & 인강 관련 추가 질문)은 8/22까지 받은 후 8/23에 답신드리겠습니다!

[1강 수강 전 예습 문항]

[미시적 관점]

★160920, ★201012, 211014

[거시적 관점]

181111, ★190614, 191110, 201111, ★210620

[비율 추론]

171112, ★180914, 210913, ★211116

[위치 추론]

200616, ★211111, 220616

[복제 실험]

200911, ★210616

주제 구성

의도한 바는 아니나... 권 순서 대로 진행하다 보니 21학년도 주요 준킬러 2문항이 포함된 주제를 처음으로 다룰 듯 합니다!

그에 따라 왼쪽 문항 전부 Remind 후 들어오시면 BEST, 어려우시더라도 ★ 문항은 반드시 생각해보신 후 수강하시기를 권장합니다.